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미 증시, 매크로 및 트럼프 노이즈에도,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효과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7일(목) 미국 증시는 미-이란 협상 재개 지연,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일부 외신 보도와 같이 노이즈성 재료가 상존했으나, 엔비디아(+8.7%), 세일즈포스(+22.6%)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AI 모멘텀에 힘입어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 마감(다우 +0.2%, S&P500 +0.7%, 나스닥 +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

이번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준 결과였던 것으로 판단. 3분기 GPM 가이드스(매출 총이익률, 74.0% vs 컨센 75.0%)가 기대치를 다소 못 미치기는 했으나, 마진률, 수익성 피크아웃보다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 더 주목하게 만드는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2028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 전망이 70%(YoY)로 시장 컨센서스(44%)를 대폭 상회하는 등 AI 수요의 가시성(+HBM, DRAM 가격 모멘텀)을 한층 더 개선시켜준 모습. 엔비디아의 GPM 마진에는 메모리 원가 상승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반도체주에게는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여건 속에서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재료.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강세에도 마이크론(-0.3%), 샌디스크(-1.0%)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미온적인 주가 반응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 반도체의 실적, 펀더멘털이 아니라, 엔비디아 및 세일즈 포스로 시장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급 이슈였던 것으로 해석 가능.

물론 9월에도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론 실적 등과 같이 AI주들은 주도주로서 검증대에 계속 올라가야 하는 후속 과제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파급 효과를 고려 시, 당분간 AI 투자 축소, 수익성 불안 등 부정적인 내러티브의 추가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갈 필요.

이제 주식시장은 잭슨홀 미팅(28일, 밤 11시)에서 케빈 워시 의장의 연설에 집중할 예정. 이번 연설에서는 9월 금리인상 신호 등장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이보다는 장기물 시장 금리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나오는 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

미 재무부의 시장 안정조치(바이백 확대, TGA 현금 활용 가능성 등), 7월 CPI, PCE를 통한 인플레이션 상방 불확실성 완화를 확보한 만큼, 시장에서도 워시 의장이 추가 긴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를 고려 시, 이번 잭슨홀 연설 이후 증시 전반의 위험선호심리가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로 급등 출발한 이후 한은의 금리인상 여파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점도표 및 기자회견을 통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하락, 반도체 중심의 실적 기대감 지속 등에 힘입어 1%대 강세로 마감(코스피 +1.5%, 코스닥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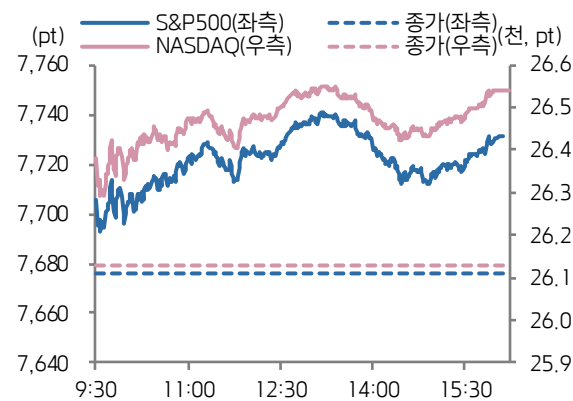
금일에는 엔비디아 및 세일즈포스발 미국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도, 전일 선반영 인식 속 잭슨홀에서의 케인 워시 의장 연설 대기심리 등으로 눈치보기 장세를 전개하면서, 업종 차별화 흐름을 보일 전망.

오늘 주가 움직임을 넘어 향후 코스피 방향성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8월 중 여러 차례 도전을 했던 7,000pt 돌파 및 안착 여부임. 사실 6,900pt 돌파나 7,000pt돌파나 100pt 차이밖에 없기는 하지만, 지수 앞자리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모멘텀과 저항선 돌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

다행히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상방 재료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 27일 기준, 코스피의 26년과 27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89.7조원(vs 7월말 974.9조원), 1,314.3조원(vs 7월 말 1,310.9조원)으로 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엔비디아 실적 이후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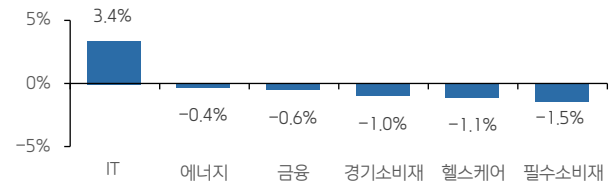
밸류에이션상 진입 유인(선행 PER 5.5배 내외), 변동성 레벨 다운(VKOSPI 53pt대 vs 7월 말 84pt대) 등 여타 제반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상방 재료에 해당. 따라서, 오늘 7,000pt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주 혹은 9월 중 돌파에 성공하면서, 중기 회복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갈 필요.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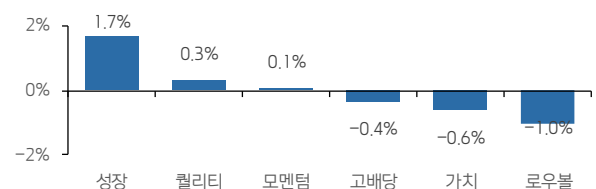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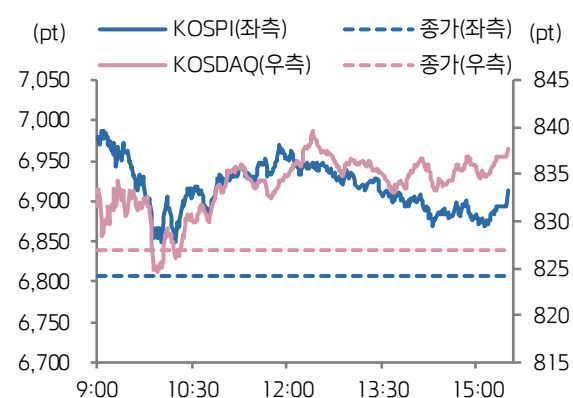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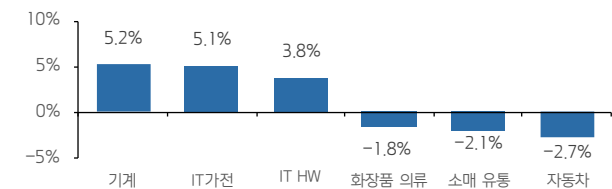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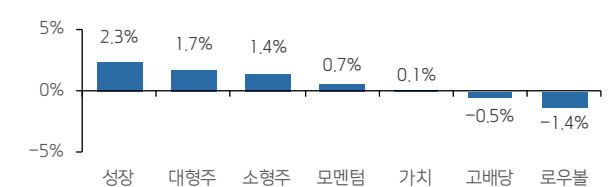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종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4.58	+0.36%	+16.03%	GM	86.18	-0.17%	+6.46%
마이크로소프트	505.06	+1.75%	+5.1%	일라이릴리	1,176.10	-1.12%	+9.97%
알파벳	340.65	-0.39%	+8.98%	월마트	102.63	-1.64%	-7.3%
메타	571.10	-0.87%	-13.33%	JP모건	354.22	-0.64%	+11.49%
아마존	256.26	-1.54%	+11.02%	엑손모빌	156.44	-1.11%	+32.61%
테슬라	354.81	+2.6%	-21.1%	세브론	199.77	-0.22%	+34.73%
엔비디아	227.98	+8.74%	+22.39%	제너럴일렉트릭	102.63	-1.6%	-7.3%
브로드컴	371.54	+4.49%	+7.75%	캐터필러	817.00	-0.6%	+43.49%
AMD	476.67	-0.89%	+122.58%	보잉	209.89	-1.04%	-3.33%
마이크론	935.39	-0.32%	+227.92%	넥스트에라	83.47	-0.9%	+5.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912.37	+1.53%	+64.03%	USD/KRW	1,382.00	-0.18%	-3.99%
코스피200	1,088.61	+1.63%	+79.64%	달러 지수	99.12	-0.04%	+0.81%
코스닥	837.65	+1.3%	-9.49%	EUR/USD	1.17	+0.02%	-0.79%
코스닥150	1,459.97	+1.82%	-5.65%	USD/CNH	6.72	-0.05%	-3.67%
S&P500	7,730.99	+0.72%	+12.94%	USD/JPY	159.39	+0.05%	+1.71%
NASDAQ	26,541.35	+1.57%	+14.2%	채권시장			
다우	53,569.44	+0.2%	+11.46%	가격	DTD(bp)	YTD(bp)	
VIX	14.51	-4.6%	-2.94%	국고채 3년	3.750	-6.7bp	+79.9bp
러셀2000	3,014.34	+0.28%	+21.45%	국고채 10년	4.221	-6.1bp	+83.6bp
필라. 반도체	11,882.17	+2.33%	+67.75%	미국 국채 2년	4.232	+2.3bp	+75.9bp
다우 운송	21,440.27	-0.66%	+23.52%	미국 국채 10년	4.676	+3bp	+50.9bp
상해종합	3,956.57	+1.13%	-0.31%	미국 국채 30년	5.193	+2.6bp	+35bp
항셍 H	8,490.31	-0.51%	-4.75%	독일 국채 10년	3.253	+1.9bp	+39.8bp
인도 SENSEX	76,933.59	-0.7%	-9.7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424.73	-0.71%	+10.94%	WTI	83.53	+1.58%	+46.67%
MSCI 전세계 지수	1,154.70	+0.41%	+13.81%	브렌트유	89.70	+2.12%	+47.41%
MSCI DM 지수	4,993.42	+0.43%	+12.71%	금	4,664.00	+0.23%	+3.7%
				은	69.43	+2.07%	-1.66%
				구리	658.95	-0.15%	+15.97%

MSCI EM 지수	1,722.80	+0.33%	+22.67%	BDI	3,056.00	+4.44%	+62.81%
MSCI 한국 ETF	182.14	+1.65%	+87.35%	옥수수	533.50	-0.56%	+15.8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760.75	+1.67%	+34.71%
비트코인	80,105.20	+2.12%	-8.61%	대두	1,268.00	+0.16%	+19.12%
이더리움	2,508.18	+1.46%	-15.77%	커피	309.65	-3.88%	-1.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